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전략에 미치는 영향요인 특성과 중요도 분석

The Critical Factors Affecting Cultural Resources-bas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Soonja Lee(sjalee@krihs.re.kr)

요약

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의 발견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려는 다양한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지역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지역발전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해 본 연구는 다수의 지역문화자원 활용 사례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Meta-analysis)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계층화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해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해 보았다. 분석결과, 총 61건의 선행연구들로부터 278개의 직·간접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이들을 대표하는 핵심내용으로 통·폐합한 후 공통속성을 지닌 요인들을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4개 범주(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내부 역량 강화, 참여 및 네트워크 확대)에 모두 26개 중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빈도 및 중요도 분석결과는 이들 범주 중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과 관련된 요인들이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추진과정과 결과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의 성공여부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결정되지만,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문화자원의 분포와 함께, 그것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용능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다수 선행사례연구를 대상으로 영향요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 중심어 : | 지역발전전략 | 문화자원 | 활용 | 영향요인 | 상대적 중요도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key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on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o use cultural resources. The methods employed are Meta-analysis with 61 case studies in order to draw related factors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with 68 experts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important facto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26 critical factors are drawn from the case studies and they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named as ‘the capacity building to excavate and utilize cultural resources which are having potential power’,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basis for making projects good progress’, ‘the boosting of internal capability of locals in the process of project’, and ‘the preparation of cultural governance and multidirectional networking strategies among persons concerned or stakeholder’. The analysis of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shows that among others, ‘the capacity building to excavate and utilize cultural resources which are having potential power’ is the most fundamental factors to achieve policy goals. There are few studies that have drawn factors from multi-case studies. In this respect, it is far from being complete but meaningful to a little more enhance the generalization of research findings.

■ keyword : |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 Cultural Resources | Effective Use | Critical Factors | Relative Importance |

* 이 논문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2015)의 내용 일부를 보완·수정한 것임.

접수일자 : 2017년 05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5월 31일

수정일자 : 2017년 05월 31일

교신저자 : 이순자, e-mail : sjalee@krihs.re.kr

I. 서론

21세기 중요한 지역정책 키워드의 하나는 단연 ‘문화’다. 이는 양적·기능적 성장논리에 매달려온 이제까지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문화적 가치를 중심 척도로 삼는 연성적(軟性的) 지역관리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1]. 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럽,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각 도시와 지역은 그들이 지닌 고유한 문화자원을 특화해 관련 콘텐츠와 스토리 발굴, 장소 조성 및 이미지 개선, 상품 개발과 상업화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 기존 지역발전전략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자원이자 수단으로서 문화와 그 가치를 발견하고 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규모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적은 비용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자원 활용이 지역발전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많은 도시와 지역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보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각각의 다양한 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 지역의 내생적 발전의 동력이 될 만한 문화자원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굴하고 활용할 경험과 전문성이 미흡한데다,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정책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이다[2]. 정부의 공모 또는 비공모 사업 일부에서 효과가 가시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지자체 차원의 비전이나 슬로건 제시에 머물고 있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 자립적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 관한 연구들 또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발굴과 활용에 관한 개별 사례에 집중해온 측면이 있어서 종합적 관점에서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전략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에 착안해 본 연구는 단일 또는 소수의 사례분석에서 탈피해 다수의 사례연구들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통해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의 추진 과정과 결과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또 무엇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책차원에서 문화가 중요한 지역발전

수단이자 목표로 등장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관련정책이나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다룬 선행사례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다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Meta-analysis)과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계층화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전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Excel 프로그램과 Expert Choice1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주요 개념의 정의

사전적으로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으로 정의되는 문화는 매우 광의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라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문화와 마찬가지로 문화자원 또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원으로서 그 문화의 가치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동시에, 장소나 지역 등 공간을 토대로 발굴 및 활용 가치를 내포하는 인간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유·무형의 산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면서도 지역적인 특수성과 의미를 지닌 문화자원에 한정한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의 문화자원은 ‘보편성’의 속성을 지니는 동시에, ‘고유성’과 ‘비배제성 및 비경합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선, 보편성이란 전국 어디에나 분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재래)시장, 철도 및 철도역 등 근대산업유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고유성이란 해당 문화자원이 존재하는 장소를 기반으로 지역고유의 공간적 입지특성을 지녀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국 어디에나 분포할 수는 있으나 자원 자체의 특성이 차별적이고 지역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배제성 및 비경합성이란 말 그대로 해당 문화자원에 접근하고 그 가치를 누리는 것이 특정인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으며,

누군가의 이용이 다른 누군가가 누려야 할 혜택을 저해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문화자원은 보존 위주의 목적보다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활용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여기서 활용이란 “문화자원 자체의 특이성, 매력, 유인성 등과 함께 지역발전 차원에서 그 자원에 내재한 가치와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존·이용·창출 하는 것”을 의미한다[3]. 법률의 제정 목적과 대상은 다르지만 몇몇 주요 법률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자원을 지역발전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제2항제6호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호다목은 각각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지역 문화에 관한 사항과 문화자원 개발에 관한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이 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What is Strategy?(1996)”에서 포터(Michael E. Porter)는 “차별화된 활동들을 통해 독특하고 가치있는 자리(position)를 만들어 내는 것”을 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4]. 본 연구의 대상과 연결하면,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이란 “전국 곳곳에 존재하면서도 지역고유의 특성과 의미를 지닌 유·무형 문화자원의 보존·이용과 새로운 가치와 기능의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을 실현시키려는 정부(특히, 지자체)의 적극적인 선택과 행위”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향요인이라 지역이 문화자원 활용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전체의 형태와 결과를 결정짓는 독립변수라고 볼 수 있다. 영향요인은 그 전략이 성공이나 실패나 혹은 효과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등을 결정하는 기본단위가 되는 것이다.

2. 문화자원 활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역별 경쟁력 극대화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 이미 오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문화’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며,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는 문화자원은 도시와 그 가치 기반의 원자재이고 석탄과 철강 또는 금을 대신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였다[5]. 이렇듯 문화적

요소의 자원화가 지역의 경제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발전과 큰 연관을 갖게 되었으며, 그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문화자원의 새로운 가치와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발전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컬처노믹스(culturenomix)나 창조도시(creative city) 등 새로운 개념들이 탄생하였다. 해외에서는 1980년대부터,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발전 대안으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이 내생적 지역발전의 주요 전략의 하나로 논의되었다[6]. 같은 맥락에서 1985년 유럽의 문화수도(European City of Culture)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사회·경제발전과 연계시키는 문화도시 개념이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지역 정체성을 강조하고 역사적 전통성과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조도시, 더 나아가 창조적 문화도시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7].

OECD는 문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문화는 지역을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문화는 비즈니스 발달의 요인으로 기능하며, 셋째, 문화는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8]. 에반스(Graeme Evans)도 2005년 논문에서 문화의 창조성에 기반을 둔 도시발전전략이 물리적 측면에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 촉진을, 사회적 측면에서 도시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활용가능분야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9].

지역은 사회, 경제 및 역사적으로 통합을 이룬 일정한 지리적 공간이며, 문화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총합체이다. 이처럼 밀접하게 연관된 문화는 지역의 고유성을 담고 있으며, 그 정체성과 가치의 발굴 및 활용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지역발전이란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자원 활용이 지역발전과 인과관계를 지니는지 또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러 문헌을 통해 볼 때, 문화자원 활용이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 하나는 공간이나 장소에 문화를 접목시키거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실현한 전략에 관한 연구로 황규홍 외(2007)의 「도시정비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특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1)」, 김영 외(2009)의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자원 유형분석과 활성화전략에 관한 연구: 진주시를 대상으로”, 김인선 외(2010)의 “도시재생을 위한 켈처노믹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 문래동 특성화지역을 중심으로”, 김항집(2011)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 방안” 등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발전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다룬 연구로 한상일(2000)의 “지역문화요소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향”, 지진호·임화순(2000)의 “재래시장의 문화관광 자원 활용방안”, 조혜정 외(2002)의 “농촌 생활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관광 활성화 방안: 전라남도 영암군 민박가정과 종가를 중심으로”, 김영준·최승묵(2004)의 「관광자원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최용복(2006)의 “제주도 농촌지역 내 돌담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임지혜·윤희진(2010)의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 인천 검단지역 향토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최경은(2013)의 「문화융합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생활문화자원을 중심으로」, 김진영(2014)의 “전쟁·안보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 철원군과 영국 Flodden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그밖에 권병·권동극(2006)의 “일본의 관광정책과 지역 활성화: 나가하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희영(2012)의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기획 연구: 프랑스 ‘퐁뒤푸’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준 외(2013)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분석 연구: 일본 나오시마와 수원시 행궁동 사례를 중심으로” 등은 국내·외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있다.

선행연구 고찰결과, 문화적 요소의 가치 발굴과 자원화 또는 그것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을 분석하고 그것을 기초로 과제를 도출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그 추진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요요인을 직접 도출한 연구는 드물었고, 문화자원의 유형이나 형태 이외에 관련 선행연구들을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나름의 일관된 특징, 예를 들면, 주제, 사업내용, 추진과정, 성과, 한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도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 연구들이 단일 또는 소수 사례의 내용분석과 비교에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III. 연구설계

1. 분석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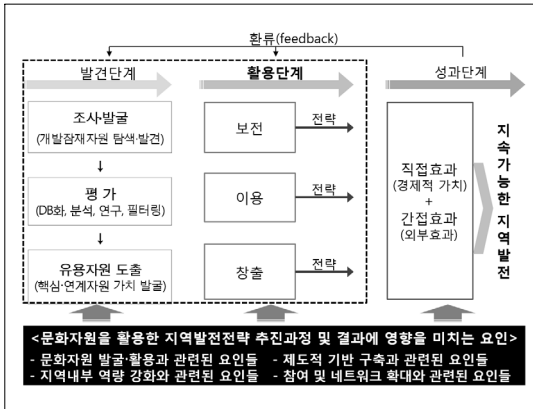
최근 들어 문화자원의 분포와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10]. 전자는 문화자원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그 특성을, 후자는 이들 문화자원이 얼마나 잘 활용(보존, 이용, 창출) 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모든 문화자원이 지역발전의 기회자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개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자원이 분포하는 동시에 이들을 활용하는 능력 모두를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문화자원 활용과정은 그 목적에 따라 각각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성공전략의 내용과 요건도 그것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은 크게 발견단계, 활용단계, 성과단계, 그리고 환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발견단계는 사업화 이전단계로 문화자원을 조사 및 발굴하고, 개발 잠재력을 평가하며, 유용한 문화자원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다. 활용단계는 본격적인 사업추진단계로 보전 위주로 소극적으로 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적극적인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과단계는 문화자원 활용이 지역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직·간접적 효과를 발현하는 단계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시각에서 보면 경제적 활력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형평성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속적

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된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고 환류(feedback)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기초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문화자원 활용이 발견단계-활용단계-성과단계-환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 이러한 단계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단계별 과정에 작용하는 영향요인들도 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능력, 제도적 기반, 지역내부 역량,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 수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서 영향요인을 지역이 문화자원 활용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전체의 형태와 결과를 결정짓는 독립변수라고 정의하였다. 이들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고 그 관계 또한 복잡하며, 이들이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의 성공여부나 효율성 정도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들의 구분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들 요인의 다수가 한꺼번에 문화자원 활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경우는 여인의 명확한 구분조차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주 : 박창석, 노백호, 박용하, 윤기란,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전략 수립* /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p.90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수정함.

그림 1. 이론적 분석틀

[그림 1]은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추진단계와 그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종합하면,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달성하려는 전략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개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닌 문화자원을 발견하고 발굴해 내는 힘, 그것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전, 이용 및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힘 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때에 비로소 주민소득 증대,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와 지역이미지 개선 등 간접적인 외부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특성과 중요도 분석을 시도했다고 밝힌바 있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적용했는데, 다수 사례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과 계층화분석기법에 기초한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이다.

첫째, 메타분석이란 특정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며 요약하는 방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관련 선행연구 대부분은 단일 또는 소수 사례연구와 사례 간 비교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려는 노력은 많지 않았다. 특히 정책현상과 같이 맥락의존적 현상들의 경우 주로 단일 또는 소수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그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은 낮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많은 자료를 어떻게 종합하여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어내가가 중요하다[11]. 이를 위해 여기서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다룬 선행연구(2002년 이후)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했는데, 메타분석 단계와 단계별 주요 수행내용은 [그림 2]와 같다.

가장 먼저 문제의식을 정리한다. 그 다음 자료의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자료를 수집한다. 코딩 계획을 설계해 세부변수를 설정하고, 계획에 따라 코딩을 실시한다. 이때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그 다음, 동일 또는 유사 의미를 지닌 영향요인 후보군들을 통·폐합하는 등 정리 및 분류를 하고, 빈도 등 기초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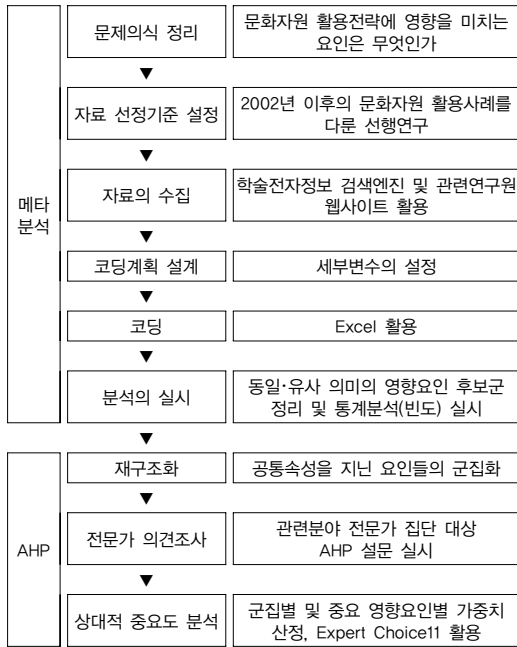


그림 2. 분석방법 및 절차

둘째,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을 위해 계층화 분석기법(AHP)을 활용하였다. AHP란 다수의 복합적인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해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대안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요 영향요인들의 공통속성을 찾아낸다. 그 다음 공통속성별로 영향요인들을 재분류하여 군집화 함으로써 계층을 구성한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한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에 활용한다. 설문은 전자메일(e-mail)을 통해 진행하고, 응답률 제고를 위해 개별전화로 응답을 요청하는 방식을 취한다. 설문지는 영향요인별 가중치 산정에 적합하도록 구성한다.

3. 자료의 구축

분석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먼저 학술전자정보 검색엔진인 KISS(한국학술정보(주)), DBpia(누리미디어), Google Scholar와 국책연구원 및 지방연구원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을 검색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자료검색은 ‘문화자원’ ‘문화자원 활용’, ‘문화자원과 지역발전’ 등 연구주제와 관련있는 용어 또는 용어의 조합으로 실시하였다. 대부분 자료가 국내사례 조사와 함께 외국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있었으므로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영향요인, 변수 또는 성공요인이라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드물어 의미는 반대이지만 거꾸로 하면 성공요인과 동의어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한계, 문제점, 정책 과제 등으로 표현된 내용을 찾아내는 방식도 취하였다.

다양한 사례를 다룬 선행연구 분석으로부터 찾아낸 영향요인들은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력하였다. 이때 개별 자료에서 발견된 요인들은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일련번호에 따라 모두 입력한 후,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요인들을 통·폐합하는 등 정리과정을 거쳤다.

IV. 분석결과

1. 중요 영향요인 도출 및 빈도분석

1.1 영향요인 추출 및 정리

학술전자정보 검색엔진과 각 연구원 웹사이트 검색 결과, 총 61건의 선행연구가 수집되었다. 물론 더 다양한 용어 또는 용어의 조합으로 검색을 한다면 더 많은 관련자료가 검색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검색 및 분석 과정에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요인들이 반복적으로 도출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상기에서 제시한 검색방식 이외의 것은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들 2차자료원으로부터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한 결과, 모두 278개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요인들을 통·폐합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모두 26개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1.2 영향요인별 빈도분석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의 성패여부와 효율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26개로 압축된다.

표 1. 중요 영향요인 도출 및 빈도분석

구분	중요 영향요인	빈도	비율 (%)
1	산·학·연·민·관 상호 교류 및 협의체(문화거버넌스) 활성화	36	12.9
2	활용잠재력과 경쟁력 높은 독특한 문화적 요소 발굴	27	9.7
3	문화거점 조성-거점 간 연결-주변지역(자원) 연계로 파급효과 확산	27	9.7
4	수요 대응형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21	7.6
5	체계적인 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 시스템 구축	17	6.1
6	기타(내용과 성격상 어느 특정이유로 분류하기 어려운 요인들)*	16	5.8
7	구성원의 문화자원 가치 인식 및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15	5.4
8	다양한 수준의 문화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12	4.3
9	문화창조산업으로 육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	11	4.0
10	기관장의 의지, 신념, 지도력 등 리더십 존재	11	4.0
11	공간계획체계(도시계획재생전략 등) 연계 반영	10	3.6
12	지역 창의인력 보충 및 전문성 강화	9	3.2
13	획기적이고 기발한 홍보 및 마케팅전략 마련	8	2.9
14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및 안정적 예산 확보	8	2.9
15	관련업무 통합수행을 위한 별도 전담기구	8	2.9
16	문화자원 활용 관련규제 완화	6	2.2
17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첨단정보시스템	6	2.2
18	여가행태 변화에 맞춘 특화된 문화공간·시설 확충	5	1.8
19	다부처 관련사업 간 연계성 강화 및 정보 공유	5	1.8
20	조직의 기획·연출력, 비즈니스마인드 및 운영 능력	4	1.4
21	중앙정부 등 관의 개입 및 의존도 최소화	4	1.4
22	내외부 전문가 네트워크화된 큐레이터시스템 구축	4	1.4
23	정부 관련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	3	1.1
24	외부인력·자본·문화에 대한 개방성	3	1.1
25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 및 관련지자체간 공조	1	0.4
26	사람·자원·장소(공간)의 유기적 결합 및 네트워크화	1	0.4
계		278	100.0

주 : *기타에는 무형자원의 비주얼화, 생활문화자원 중심의 관광자원화,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문화자원의 본질적 진정성 유지 및 지나친 상업주의 지양, 자연친화적 개발, 경관 및 환경훼손 최소화, 지역사회 수용능력 고려, 재난 예방 등이 속함.

이들 영향요인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례에 가장 많이 나타난 영향요인은 '산·학·연·민·관 상호 교류 및 협의체(문화거버넌스) 활성화'로 전체의 12.9%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활용잠재력과 경쟁력 높은 독특한 문화적 요소 발굴'과 '문화거점 조성-거점 간 연결-주변지역(자원) 연계로 파급효과 확산'이 각각 9.7%, '수요 대응형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이 7.6%, 문화자원의 발굴·조사·DB화·연구·분석·평가 등 '체계적인 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시스템 구축'이 6.1%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로부터 문화자원 활용전략이 제대로 지역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문화거버넌스의 존재 및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활용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차별화된 문화자원이 분포해 있어야 하며, 그것을 발견하고 적극 개발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중요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2.1 AHP 실시를 위한 영향요인의 재구조화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하여 26개 요인들을 재구조화 하였다. 먼저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다음, 채경진(2009)의 분류에 기초해 범주라는 이름으로 요인들의 공통속성을 찾아냈는데 '문화자원 발굴·활용',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내부 역량 강화', '참여·네트워크 확대'가 그것이다[12]. 마지막으로, 중요 영향요인들을 상위계층, 즉 4개 범주로 재분류 및 범주화 시켰다. 이를 통해 '목표-범주-영향요인'의 계층구조가 만들어졌다. 범주 중 '문화자원 발굴·활용'은 관련정책 및 사업 추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활용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문화자원과 그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굴, 개발 및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도적 기반 구축'은 관련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행·재정시스템, 계획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 '지역내부 역량 강화'는 구성원이 관련정책 및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자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추진동력과 힘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참여·네트워크 확대'는 관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람·자원·장소의 유기적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표 2. 영향요인의 재구조화를 위한 범주의 설정

목표	범주	정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달성	문화자원 발굴·활용	관련정책 및 사업 추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활용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문화자원과 그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굴, 개발 및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도적 기반 구축	관련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나 행·재정시스템, 계획 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
	지역 내부역량 강화	조직 구성원이 관련정책 및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술, 기능과 능력, 전문성과 창조성 등 내부 추진 동력과 힘을 강화하는 것
	참여·네트워크 확대	관련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뢰, 호혜성, 공감대,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공유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람·자원·장소의 유기적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

4개 범주로 중요 영향요인들을 범주화 시킨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문화자원 발굴·활용’로 재분류된 영향요인은 체계적인 조사 및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활용잠재력과 경쟁력 높은 독특한 문화적 요소 발굴, 수요 대응형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수준의 문화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여가행태 변화에 맞춘 특화된 문화공간·시설 확충, 문화창조산업으로 육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 등 6개이다.

‘제도적 기반 구축’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및 안정적 예산 확보, 정부 관련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 다부처 관련사업 간 연계성 강화 및 정보 공유, 공간 계획체계 연계 반영, 문화자원 활용 관련규제 완화, 관련업무 통합수행을 위한 별도 전담기구,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첨단정보시스템 등 7개가 포함된다.

‘지역내부 역량 강화’에는 기관장의 의지, 신념, 지도력 등 리더십 존재, 구성원의 문화자원 가치 인식 및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조직의 기획·연출력, 비즈니스 마인드 및 운영능력, 지역 창의인력 보충 및 전문성 강화, 외부인력·자본·문화에 대한 개방성, 중앙정부 등 관의 개입 및 의존도 최소화, 획기적이고 기발한 홍보 및 마케팅전략 마련 등 7개이다.

‘참여·네트워크 확대’에는 산·학·연·민·관 상호 교류 및 협의체 활성화,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 및 관련지자체간 공조, 내·외부 전문가 네트워크화된 큐레이터 시스템 구축, 사람-자원-장소(공간)의 유기적 결합 및 네트워크화, 문화거점 조성-거점 간 연결-주변지역(자원) 연계로 파급효과 확산 등 5개가 포함된다.

표 3. 중요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범주	가중치 (순위)	중요 영향요인	범주 내		전체	
			가중치	순위	종합 가중치	순위
문화 자원 발굴· 활용	0.297 (1)	① 체계적인 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시스템 구축	0.111	6	0.0330	16
		② 활용잠재력과 경쟁력 높은 독특한 문화적 요소 발굴	0.207	2	0.0615	3
		③ 수요 대응형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0.220	1	0.0653	2
		④ 다양한 수준의 문화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0.177	3	0.0526	6
		⑤ 여가행태 변화에 맞춘 특화된 문화공간·시설 확충	0.140	5	0.0416	13
		⑥ 문화창조산업으로 육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	0.144	4	0.0428	12
제도적 기반 구축	0.203 (4)	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및 안정적 예산 확보	0.214	2	0.0434	11
		② 정부 관련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	0.236	1	0.0479	9
		③ 다부처 관련사업 간 연계성 강화 및 정보 공유	0.137	4	0.0278	19
		④ 공간계획체계(도시계획 재생전략 등) 연계 반영	0.156	3	0.0317	18
		⑤ 문화자원 활용 관련규제 완화	0.100	5	0.0203	21
		⑥ 관련업무 통합수행을 위한 별도 전담기구	0.076	7	0.0154	25
		⑦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첨단정보시스템	0.080	6	0.0162	24
지역 내부 역량 강화	0.231 (3)	① 기관장의 의지, 신념, 지도력 등 리더십 존재	0.172	3	0.0397	14
		② 구성원의 문화자원 가치 인식 및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0.231	1	0.0534	5
		③ 조직의 기획·연출력, 비즈니스 마인드 및 운영능력	0.139	4	0.0321	17
		④ 지역 창의인력 보충 및 전문성 강화	0.192	2	0.0444	10
		⑤ 외부인력·자본·문화에 대한 개방성	0.077	7	0.0178	23
		⑥ 중앙정부 등 관의 개입 및 의존도 최소화	0.088	6	0.0203	21
		⑦ 획기적이고 기발한 홍보 및 마케팅전략 마련	0.101	5	0.0233	20
참여·네트워크 확대	0.270 (2)	① 산·학·연·민·관 상호 교류 및 협의체(문화거버넌스) 활성화	0.182	4	0.0491	8
		②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 및 관련지자체간 공조	0.188	3	0.0508	7
		③ 내·외부 전문가 네트워크화된 큐레이터시스템 구축	0.142	5	0.0383	15
		④ 사람-자원-장소(공간)의 유기적 결합 및 네트워크화	0.276	1	0.0745	1
		⑤ 문화거점 조성-거점 간 연결-주변지역(자원) 연계로 파급효과 확산	0.213	2	0.0575	4

주 : 31명) C.I 0.2

네트워크화, 문화거점 조성-거점 간 연결-주변지역(자원) 연계로 파급효과 확산 등 5개가 포함된다.

앞서 밝혔듯이 도출된 영향요인 26개 중 '기타'는 그 내용과 성격상 어느 특정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운 요인들로, 상대적 중요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대상 요인은 모두 25개이다.

2.2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 구현이라는 목표의 설정 → 공통속성에 기초한 4개 범주의 분류 → 25개 중요 영향요인의 재분류 작업결과를 기초로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6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설문대상자의 약 59%인 40명이 설문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문·업무분야를 보면, 문화 관련분야가 46.1%로 가장 많았고, 국토 및 지역 관련분야가 28.2%, 도시 관련분야가 20.5% 순이다. 실무·연구경력별 응답자 특성은 10년 이상된 응답자가 72.0%를, 5년 이상~10년 미만 응답자가 23.0%로 나타났다.

AHP를 활용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변수 간 쌍대비교(paired comparison)를 실시하였고, 40명의 응답자 중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가 0.2 이내인, 즉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판단되는 31명의 응답결과만으로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이때 Expert Choice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개 범주 간 상대적 중요도와 동일 범주 내 영향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문화자원 발굴·활용',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 내부 역량 강화', '참여·네트워크 확대' 등 4개 범주의 중요도 분석결과, '문화자원 발굴·활용'의 가중치가 0.297로 가장 높았고, '참여·네트워크 확대' 0.270, '지역 내부 역량 강화' 0.231, '제도적 기반 구축' 0.20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제시된 빈도분석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전문가 집단 또한 문화자원 활용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성공여부, 즉 지역발전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요인이 바로 활용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는 문화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일 범주 내 영향요인 간 중요도 분석결과, 문화자원 발굴·활용의 경우 '수요 대응형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의 가중치가 0.220으로 가장 높았고, '활용잠재력과 경쟁력 높은 독특한 문화적 요소 발굴'은 0.207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행태 변화에 맞춘 특화된 문화공간·시설 확충'(0.140)이나 '체계적인 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시스템 구축'(0.111)은 다른 2개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앞선 빈도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전문가 집단의 경우 '체계적인 조사 및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보다 '다양한 수준의 문화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나 '문화창조산업으로 육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도적 기반 구축의 경우, '법·제도 마련 등 정부 관련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의 가중치가 0.236이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및 안정적 예산 확보'는 0.214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첨단정보시스템 구축'(0.080)과 '관련업무 통합수행을 위한 별도 전담기구 마련'(0.076)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앞선 빈도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전문가 집단은 '정부 관련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내부 역량 강화의 경우, '구성원의 문화자원 가치 인식 및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가중치(0.231)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지역 창의인력 보충 및 전문성 강화'(0.192), '기관장의 의지, 신념, 지도력 등 리더십 존재'(0.172) 순으로 나타난 반면, '외부인력·자본·문화에 대한 개방성'(0.077)과 '중앙정부 등 관의 개입 및 의존도 최소화'(0.088)는 낮은 값을 보였다.

참여·네트워크 확대의 경우에는 '사람-자원-장소(공간)의 유기적 결합 및 네트워크화'의 가중치는 0.276이고, '문화거점 조성-거점 간 연결-주변지역(자원) 연계로 파급효과 확산'은 0.213으로 높은 반면, '내·외부 전문가 네트워킹화된 큐레이터시스템'(0.142)의 가중치는 낮게 나타났다. 빈도분석 결과와 다른 점은 전문가 집단은 문화자원 활용전략이 지역발전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자원-장소(공간)의 유기적 결합 및 네트워크

크'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한편, 4대 범주 간 가중치와 측정변수별 가중치를 종합한 결과, 참여·네트워크 확대의 '사람-자원-장소(공간)의 유기적 결합 및 네트워크화'의 종합가중치가 0.0745로 영향요인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 '수요 대응형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활용잠재력과 경쟁력 높은 독특한 문화적 요소 발굴', '문화거점 조성-거점 간 연결-주변지역(자원) 연계로 파급효과 확산', '구성원의 문화자원 가치 인식 및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나타났다.

V. 함의 및 결론

지역발전 효과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요인들은 문화자원의 유형이나 활용형태 등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사례마다 처한 여건에 따라 나름 차별적인 전략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중요 영향요인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요약하면, 활용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전문적인 식견 속에서 그것을 발굴하고 활용하며 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지역 내·외부 전문가, 지역리더 등)이 존재하며, 그것을 구현할 장소(공간)가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비로소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문화자원 활용전략을 함께 만들고 그 혜택을 함께 나눌 지역사회 구성원(지역주민)의 인식과 공감대, 참여가 보장되고, 관련주체들 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과 합리적인 협업환경이 조성되면, 문화자원 활용전략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문화자원 활용전략이 지역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자체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활용가능성이 뛰어난 문화자원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인으로 활용과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문화적 요소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이후 단계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자원 활용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사업의 형태로 대부분의 문화자원 활용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다 정권교체 등 외부변수에 의해 사업 존폐가 결정되기 쉽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내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간이 갈수록 중앙정부 주도보다는 지역 주도의 발전으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개발보다는 민간자본에 의한 문화생태계 구축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외부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적자원 확충 및 환경 조성 등 내부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역 내·외부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노력과 결실이 특정지역이나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에 파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문화자원과 관련된 사업 대부분이 시설, 프로그램, 인력 등 각각의 대상을 개별적으로 특화시키거나 활용하는데 집중해 이들을 유기적이고 연결시켜 시너지효과를 제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은 어느 특정 또는 소수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해 나오는 결과물이다. 또한 대부분 사례들의 중요 영향요인에 있어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고려될 내용과 접근방식은 조금씩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논하거나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본 연구가 다수의 선행사례연구를 대상으로 분

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관련연구의 많은 경우 사례연구를 통해 특정주제를 비교적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두서너 개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기존 연구들이 단일 또는 소수 사례연구를 통한 특정 영향요인 규명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종합적 관점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요인들을 망라하고자 했으며, 이들을 정리하고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문화자원 활용전략의 성공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고려하거나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 추진에 기여할 것이다. 아주 독특한 사례에는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경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영향요인들이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전략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수의 선행사례연구에 대한 계량분석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도된 연구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다수의 선행사례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소 자의적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는 좀 더 다양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되, 학술적으로 좀 더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전략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6] 채미옥, 차미숙, 문정호, 국토의 역사문화역량 제고와 문화권 조성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2.
- [7]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4.
- [8] 이원호, 이병민, “문화와 창조기반 지역발전전략의 모색: 서울시 구별 문화역량 비교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제49권, 제2호, pp.253-265, 2015.
- [9] 이순자, 장은교,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2012.
- [10] 김태환, 류승환, 김광익, 변필성, 황승미,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II), 국토연구원, 2005.
- [11] 이해영, 고효진, “한국의 정책집행 사례에 대한 메타분석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6권, 제2호, pp.171-195, 2015.
- [12] 채경진, “지자체의 성공적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우선순위설정에 관한 연구: 계층분석법(AHP)의 적용,”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3호, pp.319-333, 2009.

참 고 문 헌

- [1] 김양식, 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과 활용방안 연구, 충북개발연구원, 2009.
- [2] 김현호, 한표환,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 [3] 이순자, 장철순, 박경현, 장은교, 국토품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자원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2.
- [4] Michael E. Porter, “What is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1996.
- [5] 설연수,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저 자 소 개

이 순 자(Soonja Lee)

정희원



- 1993년 2월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학사)
 - 1995년 2월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석사)
 - 2006년 5월 : Colorado State University 박사(Political Science)
 - 1995년 5월 ~ 현재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관심분야> : 지역정책 및 계획, 문화도시, 고도(古都)